홍명보호, 2026 북중미 월드컵 '죽음의조' 피했다

개최국 멕시코 껄끄러워…포트3 최하랭킹 남아공 편성 행운
덴마크·북마케도니아·체코·아일랜드 유럽PO 내년 3월 열려
한국, 다른 나라 오가지 않고 멕시코에서만 '조별리그 3경기'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패스D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유럽 PO 패스D에서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한다.

체코-아일랜드 경기 승자가 덴마크-북마케도니아 경기(이상 현지시간 내년 3월 26일) 승자와 맞붙어(3월 31일) 본선 진출 팀을 정한다.

한국의 경기 장소도 정해졌다.

우리시간 내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를 상대한다.

이어 25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벌인다.

다른 나라를 오가지 않고 멕시코에서만 각각 3경기를 치르는 건 선수들 체력 관리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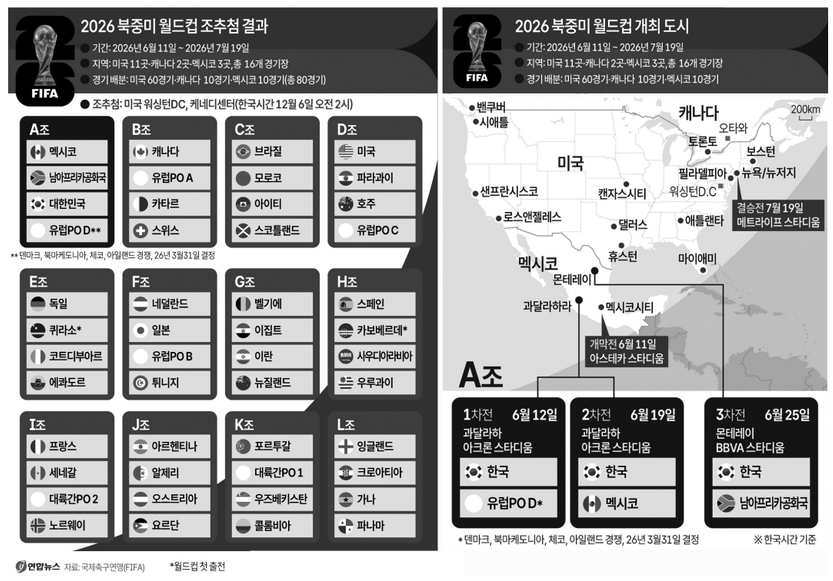
경기 시간 등 세부 일정은 7일 오전 2시에 발표됐다. 23번째 월드컵인 2026년 대회는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2002 한국·일본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복수의 국가에서 열리며 역대 가장 넓은 대륙을 아우르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 치러지는 첫 월드컵이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6승 4무 무패로 승점 22를 쌓아 B조 6개 팀 중 1위를 차지하며 북중미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 추첨 결과다.

개최국 조에 속해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브라질 등 포트1의 우승 후보들을 모두 피하게 됐다. 또 포트3에서 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공을 만나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다만, 어떤 유럽 팀을 만나게 될지는 PO가 열리는 내년 3월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유럽 PO 4개 패스 중 이탈리아가 속한 패스A를 피한 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개최국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멕시코와 대결하는 건 '행운 중 불행'이라 할 만하다.

멕시코는 포트1 국가 중 FIFA 랭킹이 캐나다(2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15위다.

그러나 많이 뛰고 파이팅 넘치는 축구를 펼치는 멕시코는 한 번 흐름을 타면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한국은 멕시코와 통산 전적에서 4승 3무 8패로 뒤진다.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 두 차례 모두 한국이 졌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1-3으로, 2018년 러시아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로 패했다.

최근인 지난 9월 미국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2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남아공은 한국과 한 번도 맞붙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팀'이다.

남아공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건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남아공은 지금까지 3차례 월드컵 본선에 올라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대표팀은 아프리카 예선 C조에서 전통의 강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조 선두로 본선 티켓을 거머쥔 터라 쉽게 봐선 안 될 상대다.

유럽 PO 패스D 팀 중에서는 덴마크(21위), 체코(44위), 아일랜드(59위), 북마케도니아(65위) 순으로 랭킹이 높다.

홍 감독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멕시코 지역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이동한다. 후보지 5곳 이상을 답사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구회와 대화…통합위한 계단 밟겠다"

이종범, 시즌 도중 kt 퇴단 과정 고개숙여 사과

'바람의 아들' 이종범(55) 전 프로야구 KT 위즈 코치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한은회) 제5대 회장에 취임한 이종범 신임 회장은 "은퇴 프로야구 선수들의 또 다른 모임인 일구회와 통합을 위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범 신임 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에서 열린 '2025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 일구회와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두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며 "일구회 선배님들과 대화하며 (통합을 위해)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범 회장은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회장은 "그동안 두 개의 은퇴선수 조직이 함께 활동하다 보니 많은 후배가 혼란을 느끼고 외부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다"며 "외부에선 은퇴 선수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여 안타까움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은퇴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 과정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우선 한은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광수 일구회장님과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회는 2013년 발족한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의 모임이다.

이순철 해설위원이 한은회 1·2대 회장을 맡았고, 안경현 위원이 3·4대 회장을,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종범 신임 회장이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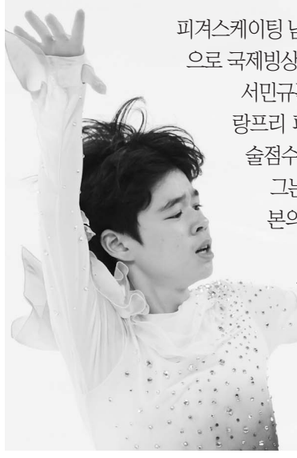
한편 이종범 회장은 지난 7월 프로야구 시즌 도중에 kt wiz 퇴단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회장은 "그때의 과정은 저의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정말 잘못됐다"며 "저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야구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kt 코치로 활동하던 이 회장은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감독으로 출연을 위해 시즌 도중 퇴단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피겨 서민규, 한국 남자 선수 최초 JGP 파이널 우승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세대 간판 서민규(경신고)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JGP) 파이널 정상에 올랐다.

서민규는 5일 일본 나고야 IG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1.64점, 예술점수(PCS) 79.45점, 총점 171.09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84.82점을 합한 최종 총점 255.91점으로 일본의 나카타 리오(249.70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서민규는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 남자 선수가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처음이다.

그동안 최고 성적은 지난해 서민규와 2023년 김현겸(현 고려대)이 거둔 2위였다.

남녀 싱글을 합하면 2009년 12월 여자 싱글 김연아(은퇴) 이후 16년 만에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광주는 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1-2로 패배했다.

'퇴장·부상 겹악재' 광주FC, 연장 혈투 끝 코리아컵 준우승

창단 후 첫 결승서 전북에 1-2 아쉬운 패배
ACLE 8강·K리그1 3년 연속 잔류 등 성과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후 처음으로 진출한 코리아컵 결승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광주는 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1-2로 패배했다. 앞서 광주는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이다. 올해 마지막 일정인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우승의 새역사까지 바라본 광주였지만, 퇴장과 부상의 겹악재를 맞으며 결국 전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구단 사상 두 번째 아시아무대(ACL 2)를 밟는데도 실패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끈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프리드욘슨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하승운, 유제호, 주세종, 신창무를 배치했다. 후방은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이날 경기는 그야말로 치열했다. 광주는 창단 첫 코리아컵 우승이 노렸고, 전북은 한 해 두 개 주요 대회(K리그1·코리아컵)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더블이 걸려 있었다. 양 팀은 영예로운 기록 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 과정에서 광주는 이정효 감독과 조성권이 퇴장당하고, 권성윤이 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다. 상대 역시 이승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등 과열된 분위기였다.

전반 39분에는 상대 김태환이 오른발에 통증을 호소하며 최철순과 교체됐다.

1분 뒤 광주는 악재를 맞았다. 이정효 감독이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하다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연속으로 받고 퇴장당했다. 직전 준결승 퇴장 징계로 벤치를 비웠던 상대 포옛 감독에 이어 이정효 감독까지 자리를 비우면서 양 팀 모두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다.

선제골은 전북의 차지였다. 전반 추가시간 상대 김태현이 길게 올린 패스를 김경민이 제대로 쳐내지 못했다. 골대 왼쪽에 흐른 공을 송민규가 패스로 연결했고, 이동준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추격에 실패하면서 전반전은 0-1로 끝이 났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광주는 주세종 대신 이강현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후반 5분 또다시 악재가 찾아왔다. 김경민이 동료 수비수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고, 노희동과 교체되는 두 번째 악재를 맞았다.

광주는 오히려 기세를 끌어올렸다. 후반 15분 노희동의 연속 선방에 성공했고, 후반 23분에는 신창무가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두들겼다.

2분 뒤에는 고대하던 동점골이 터졌다.

상대 진영 우측 신창무가 높이 올린 크로스를 헤이스가 헤더로 방향을 틀었고, 이 공을 문전 앞 프리드욘슨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광주는 프리드욘슨과 신창무 대신 최경록과 박인혁을 넣어 공세를 더했다.

승부는 연장으로 접어들었다. 연장 전반 4분 광주는 하승운을 빼고 오후성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장 전반 11분 세 번째 악재를 맞았다. 조성권이 경합 과정에서 상대 이승우와 강하게 충돌하며 퇴장당한 것.

상대는 수적 열세에 놓인 광주를 몰아쳤다.

연장 전반 16분 김태현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이승우가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1-2가 됐다.

이후 광주는 맹공을 퍼부었으나 끝내 추가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1-2로 패하며 코리아컵 준우승으로 올해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는 올해 코리아컵 준우승, K리그1 3년 연속 잔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 등 시민 구단의 한계를 딛고 맹활약을 펼쳤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